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공공언어 | 3 |
|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| 3 |
| 첨부파일(2) | 3 |

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

작성일 2022.12.16 16:01 등록자 장기승 조회수 87

- 첨부파일(2) 공공언어 바로쓰기(기안문).jpg 10 hit/123.5 KB [다운로드](#)
 공공언어 바로쓰기(바른사용).jpg 8 hit/106.5 KB [다운로드](#)

보도자료

보도 자료

사람이 있는 문화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00년 12월 20일 | 담당부서 |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|
| 담당과장 | 000 | 담당자 | 학예연구사 |

사료 작물 ^①혼파로 생산성 28% 향상

-○○청, ^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 · 귀리 ^①혼파 재배 수확 ^③연시회 열어-

□○○청(청장 김경규)은 14일 ^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섞어 심기 2차 수확 ^④연시회를 갖는다.

○ 이번연시회는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^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^①혼파 재배 기술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다. 이날 2차로 수확하는 ^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수확량과 품질도 평가한다. 또한 ^①혼파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지수분 ^⑤사일리지 수확 작업을 선보이며 현장에서 기술 정보도 나눈다.

□이 기술은 ^⑥두가지 사료 작물의 생리적 특성을 활용해 한 번 작물 파종으로 두 번 수확하는 획기적인 재배 기술이다. 두 가지 사료 작물 종자를 가을(9월)에 동시에 파종하여 1차로 그해 11월에 귀리를 수확하고, ^⑦익년도 5월에 2차로 ^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수확한다.

□이 재배 기술로 단위 면적당 ^⑧조사료의 생산성은 28% 향상되고, 경영 소득은 39% 증가해 국내 ^⑨조사료 생산의 경제성이 확보된다.

○ 또한 ^⑩조사료 두 번 수확 후 5월 ^⑪20일 경에 여름 사료 작물인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, 수단그라스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^⑫하순 경에 수확할 수 있어 ^⑬연간 삼모작 재배도 가능하다.

□○○청 초지사료과 김원호 과장은 “해당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 농가는 단위 면적당 ^⑭조사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.”라며 “^⑮한 번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^⑯노동력 경역비 절감이 가능하다.” 라고 강조했다.

56 +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

둘째 마당 _ 공문서 작성의 실제

띄어쓰기

- ⑥ 두가지 → 두 가지**
- 사물을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말이 헤아리는 말인 '가지'는 의존 명사 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.

낱말

- ① 혼파 → 섞어 심기/섞어 뿌림**
- ③ 연시회 → 기술 시연회**
- ⑦ 익년도 → 이듬해**
- ⑧ 조사료 → 거친 사료**
- 어려운 한자어 일부는 쉬운 한자어

(http://www.gangjin.go.kr)

9 20일 경 → 20일경 → 20일 무렵

10 하순 경 → 하순경 → 하순 무렵

- '-경'은 '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.
- 한자어는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쓴다.

4 사일리지 → 저수분 담근 먹이/담근 먹이

5 사일리지 → 저수분 담근 먹이/담근 먹이/ 발효 사료/매장 사료

- 어려운 외국어이므로 우리말로 쓴다.
- 다듬은 말은 '국립국어원 누리집-개선-다듬은 말'에서 찾을 수 있다.

표기

2 이탈리아라이그라스 → 이탤리안라이그라스

-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. 외래어 표기법 용례는 '국립국어원 누리집-지식-어문 규범 찾기'에서 찾을 수 있다.

표현

4 연시회를 갖는다. → 연시회를 연다. → 기술 시연회를 연다.

- '연시회, 회의 등을 갖는다'는 영어식 표현이므로 우리말다운 서술어를 쓴다.
-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.

11 연간 심모작 재배도 →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

- 삼모작의 뜻에 '심어 거둔다'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된 어휘는 빼는 것이 좋다.

12 한 번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→ 한 번 작물을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

- '파종하다'와 '수확하다'에 필요한 목적어를 써 준다.

13 노동력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. →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.

- 필요한 조사 '과'가 빠져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. 또한 절감이 가능하다보다는 '줄일 수 있다'가 더욱 자연스럽다.

[보도자료 예시]

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

사료 작물 ①혼파로 생산성 28% 향상

- ○○청, 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·귀리 ①혼파 재배 수확 ③연시회 열어 -

□○○청(청장 김○○)은 14일 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섞어 심기 2차 수확 ④연시회를 갖는다.

○ 이번 ⑤연시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①혼파 재배 기술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다. 이날 2차로 수확하는 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수확량과 품질도 평가한다. 또한 ①혼파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저수분 ⑥사일리지 수확 작업을 선보이며 현장에서 기술 정보도 나눈다.

□ 이 기술은 ⑥두가지 사료 작물의 생리적 특성을 활용해 한 번 작물 파종으로 두 번 수확하는 획기적인 재배 기술이다. 두 가지 사료 작물 종자를 가을(9월)에 동시에 파종하여 1차로 그해 11월에 귀리를 수확하고, ⑦익년도 5월에 2차로 ②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수확한다.

□ 이 재배 기술로 단위 면적당 ⑧조사료의 생산성은 28% 향상되고, 경영 소득은 39% 증가해 국내 ⑨조사료 생산의 경제성이 확보된다.

○ 또한 ⑨조사료 두 번 수확 후 5월 ⑩20일 경에 여름 사료 작물인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, 수단그라스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⑪하순 경에 수확할 수 있어 ⑫연간 삼모작 재배도 가능하다.

□○○청 초지사료과 김원호 과장은 “해당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 농가는 단위 면적당 ⑬조사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.”라며 “⑭한 번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⑮노동력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
[바로 쓰기]

[띄어쓰기]

⑥ 두가지 → 두 가지

• 사물을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말이 헤아리는 말인 ‘가지’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.

⑨ 20일 경 → 20일경 → 20일 무렵

⑩ 하순 경 → 하순경 → 하순 무렵

• ‘-경’은 ‘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쓴다.

• 한자어는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쓴다.

[낱말]

① 혼파 → 섞어 심기 / 섞어 뿌림

⑤ 연사회 → 기술 시연회

⑦ 익년도 → 이듬해

⑧ 조사료 → 거친 사료

•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.

⑤ 사일리지 → 저수분 담근 먹이 / 담근 먹이 / 발효 사료 / 매장 사료

• 어려운 외국어이므로 우리말로 쓴다.

다듬은 말은 ‘국립국어원 누리집-개선다듬은 말’에서 찾을 수 있다.

[표기]

②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→ 이탈리아어라이그라스

• 「외래어 표기법」에 따라 적는다. 외래어 표기 용례는 ‘국립국어원 누리집-지식-어문 규범 찾기’에서 찾을 수 있다.

[표현]

④ 연사회를 갖는다. → 연사회를 연다. 기술 시연회를 연다.

•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.

• ‘회의를 갖는다’는 영어식 표현이므로 우리말다운 서술어를 쓴다.

⑪ 연간 삼모작 재배도 → 한 해 동안에 삼모작도

• 삼모작의 뜻에 ‘심어 거둔다’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된 어휘는 빼는 것이 좋다.

⑫ 한번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→ 한번 작물을 파종하면 두 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

• ‘파종하다’와 ‘수확하다’에 필요한 목적어를 써 준다.

⑬ 노동력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. →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.

• 필요한 조사 ‘과’가 빠져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. 또한 ‘절감이 가능하다’보다는 ‘줄일 수 있다’가 더욱 자연스럽다.

출처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(국립국어원)

목록

GANGJIN

Web Contents

